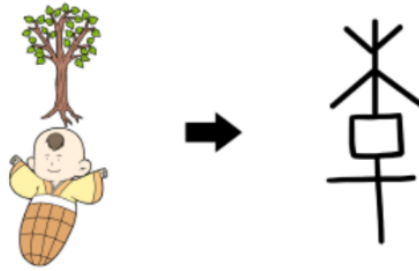


회의문자 ⓘ



李

오얏/
성(姓)
리(이)

李자는 '오얏나무'나 '성씨'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李자는 木(나무 목)자와 子(아들 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李자는 본래 나무의 일종인 '오얏나무'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좀 생소한 단어이긴 하지만 오얏나무는 '자두나무'의 다른 말이다. 李자는 과일을 많이 맺는 자두나무에 빗대어 만든 글자로 마치 나무가 아이를 낳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상형문자 ⓘ



目

눈 목

目자는 '눈'이나 '시력', '안목'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目자는 사람 눈을 그린 것으로 갑골문에 나온 目자를 보면 사람의 눈과 눈동자가 잘 표현되어있었다. 본래 目자는 가로로 쓰였었지만, 한자를 세워 쓰이는 방식이 적용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目자는 눈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부수로 쓰일 때는 대부분이 '보다'나 '눈의 상태', '눈'과 관련된 뜻을 전달하게 된다. 그러나 眞(참 진)자나 鼎(술 정)자처럼 술을 생략할 때 目자가 쓰이는 예도 있으니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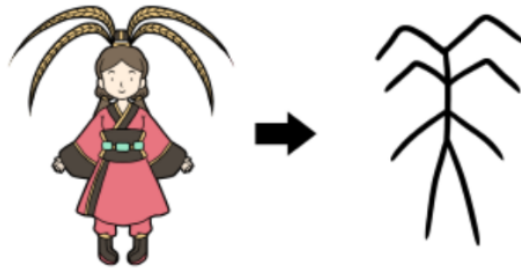
소전



해서

6
-
23

회의문자 ①



美

아름다울
미

美자는 '아름답다'나 '맛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美자는 大(큰 대)자와 羊(양 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갑골문에 나온 美자를 보면 머리에 장식을 한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양은 상서로움을 상징하기에 美자는 양의 머리를 장식으로 한 사람을 그린 것으로 보기도 한다. 고대에는 제를 지내거나 의식을 치르기 위해 제사장이 머리에 특별한 장식을 했었다. 그래서 美자는 머리에 양의 뿔이나 깃털 장식을 한 사람을 그려 '아름답다'라는 뜻을 갖게 된 것으로 풀이한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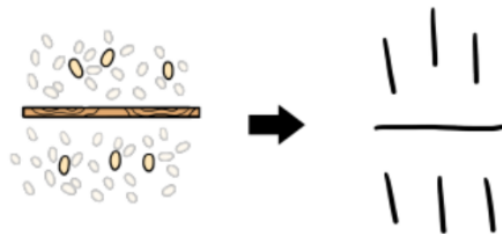
소전



해서

6
-
24

상형문자 ①



米

쌀 미

米자는 벼의 낱알을 그린 것으로 '쌀'이나 '곡식의 낱알'이라는 뜻이 있다. 米자는 마치 木(나무 목)자에 점이 찍힌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十(열 십)자 주위로 낱알이 흩어져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 것이다. 갑골문에 나온 米자를 보면 긴 막대기 주위로 6개의 낱알이 흩어져 있는데, 여기서 긴 막대기는 낱알을 펼쳐놓는 도구를 그린 것이다. 지금도 벼를 수확하면 탈곡한 낱알을 햇볕에 말리는데, 이때 낱알이 잘 건조되도록 펼치는 도구가 표현된 것이다. 米자는 벼의 낱알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부수로 쓰일 때는 주로 '쌀'이나 '곡식' 또는 곡식을 가공한 제품이라는 뜻을 전달하게 된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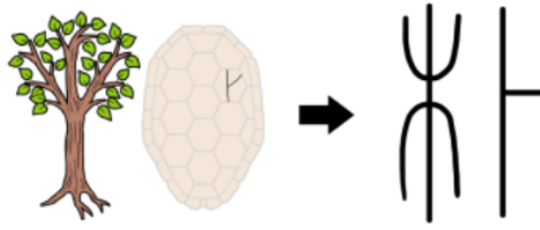
소전



해서

6
-
25

형성문자 ①



朴

후박나무
/성(姓)
박

朴자는 '성씨'나 '후박나무', '순박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朴자는 木(나무 목)자와 卜(점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卜자는 점을 칠 때 거북의 배딱지(復甲)에 갈라진 획을 그린 것이다. 朴자는 본래 '후박나무'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후박나무의 껍질은 거북의 등껍데기처럼 갈라져 있어서 朴자에 쓰인 卜자는 거북의 등처럼 갈라진 후박나무의 특징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

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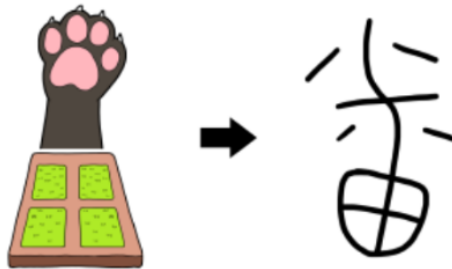
소전

朴

해서

6
-
26

회의문자 ①



番

차례 번

番자는 '차례'나 '횃수', '짐승의 발바닥'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番자는 田(밭 전)자와 采(분별할 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采자는 동물의 발바닥이나 발자국을 그린 것으로 '분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동물의 발자국을 보면 어떤 동물이 지나갔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동물의 발자국을 그린 采자에 田자가 결합한 番자는 논밭 위로 찍혀있는 동물의 발자국을 표현한 것이다. 番자는 논밭에 동물의 발자국이 차례로 찍혀있다는 의미에서 '차례'나 '횃수'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番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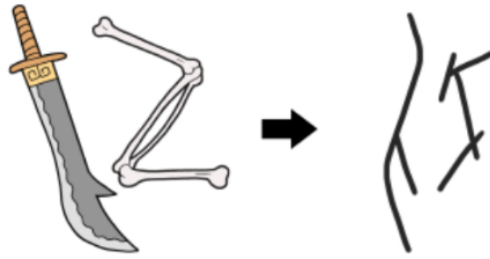
番

소전

番

해서

회의문자 ①



別

다를
/나눌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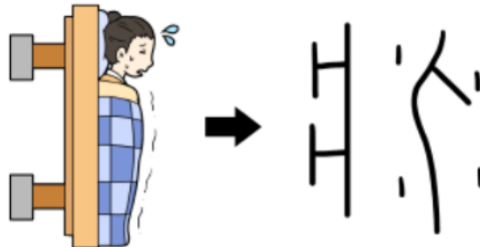
別자는 '나누다'나 '헤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別자는 另(헤어질 령)자와 刀(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另자는 𠂔(뼈 발라낼 과)자에서 유래한 것으로 뼈와 살을 발라낸다는 뜻이 있다. 別자의 갑골문을 보면 뿔조각과 칼이 함께 𠂔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사람의 뼈와 살이 나누어졌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뼈와 살이 나누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別자는 '헤어지다'나 '나누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갑골문

소전

해서

형성문자 ①



病

병(들)
병

病자는 '질병'이나 '근심', '앓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病자는 疒(병들 념)자와 丙(남녘 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갑골문에 나온 病자를 보면 침대에 누워 땀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疒 그려져 있었다. 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금문에서부터는 땀을 흘리는 사람 대신 丙(남녘 병)자가 쓰이면서 발음역할을 하게 되었다. 고대에는 病자와 疾(병 질)자 모두 '앓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글자가 분리된 이후부터 病자는 비교적 심각한 병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고 疾은 비교적 가벼운 병으로 구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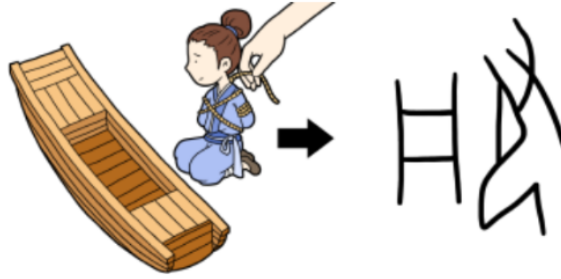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服

옷 복

服자는 '의복'이나 '복종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服자는 月(달 월)자와 𠂔(병부 절)자 又(또 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服자는 '달'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갑골문에서는 舟(배 주)자가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갑골문에서의 服자는 무릎을 꿇은 사람(𠂔)을 이끌어(又)

배(舟)에 태우고 있는 𠂔 모습이 표현되어있었다. 여기서 무릎을 꿇은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服자는 죄인을 배에 태워 호송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服자는 죄인이 따르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복종시키다'나 '항복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지만, 후에 '의복'이라는 뜻이 파생되었다. 참고로 한자에서는 舟자가 月자로 잘못 옮겨진 경우가 종종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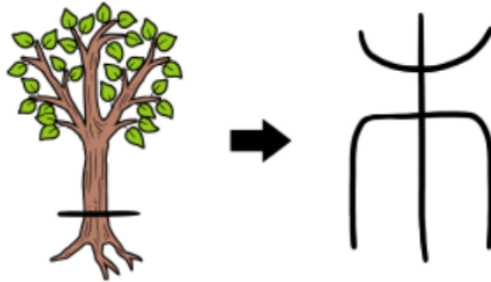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지사문자 ①



本

근본 본

이미 만들어진 상형문자에 선이나 점을 찍어 추상적인 뜻을 표현하는 것을 지사문자(指事文字)라고 한다. '근본'이나 '뿌리'를 뜻하는 本(근본 본)자는 전형적인 지사문자에 속한다. 이미 만들어져 있던 木(나무 목)자의 하단에 점을 찍어 나무의 뿌리를 가리키는 本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本자는 나무의 뿌리 부분을 가리킨 지사문자로 나무를 지탱하는 것이 뿌리이듯이 사물을 구성하는 가장 원초적인 바탕이라는 의미에서 '근본'을 뜻하게 되었다.

금문

소전

해서